

7/19(월) 다니엘 묵상 41

다니엘 10:1-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사 왕 고레스 제 삼년에 네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단 10-12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10장 1절은 단 10-12장의 내용 전체를 요약한 서론에 해당합니다(1절,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바사왕 고레스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예언은 바사왕 고레스 제 삼년에 본 환상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의 통합 국가인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던 왕이었습니다(대하 36:22-23,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살면서 국가의 높은 관직과 더불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단 1: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때까지만 나라의 관료로 일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니엘이 은퇴를 했던 시기가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한 남 유다의 포로 귀환과 맞물리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일에도 다니엘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묵상해봅니다. 그 이후 다니엘은 스스로 그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대 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단 10-12장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85세를 일기로 그의 생애를 마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전과는 달리 육체적으로도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의 슬픔

본문 1절은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2절과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라 단10-12장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만약, 1절과 2절이 연결된다면 다니엘이 2절에서 갑자기 세 이레 동안 슬퍼한 것은 1절에 기록된 대로 ‘큰 전쟁에 관한 환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한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요? 먼저, ‘세 이레’는 ‘삼 년’의 기간이 아니라 ‘삼 주간’을 뜻합니다. 다니엘은 삼 주간이나 ‘좋은 떡과 더불어 고기와 포도주’까지 입에 대지도 않고 슬퍼했던 것입니다(3절,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레스 원년에 제 1차 포로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삼 년경에는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과 본토에 살던 자들 간의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스 3:8상,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스 4:4-5,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니엘이 세 주간 동안 슬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3차 포로 귀환의 주역인 느헤미야도 비슷한 이유로 인해 슬픔에 빠져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느 1:2하-4,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향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집단으로 사회의 조소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가슴아픈 현실 앞에서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가던 사울에게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행 9:4).” 이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되어 버린 현실을 슬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말하기 전에 철저한 회개와 애통의 마음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그 분의 눈과 귀 그리고 그 분의 마음을 가진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한 영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얀마를 위한 기도:**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자유를 빼앗긴 미얀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있는 각 위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우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